

K-생태문학을 위한 시도, 여성과 공동체

손민달*

1. 여성과 자연

이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남성과 여성의 대립 구도를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설정하면서 에코 페미니즘의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던 ‘여성’은 최근에 이십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로 정의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는 여전히 성폭력의 95%가 여성 피해자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인지 의심스럽다. 여성과 자연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여성은 여전히 남성의 타자로 남아 있다. 그런데 최근 안산 선수 논란에서처럼 여성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와 동의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사회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상정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대상을 이유 없이 폭력적 언어로 매도하는 것은 인터넷 예절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성 혐오는 또다른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에코 페미니즘은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반전·반핵 운동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들을 아우르는 여성 운동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 현재 숭실대학교 베어드 교양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현대시 전반 및 한국 생태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학과 환경학회의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smindal@ssu.ac.kr

에코 페미니즘은 다른 대안적 담론에 비해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하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강한 운동적 성격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여성운동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의 문제를 표면화하면서 발생했고 여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보다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참여와 가사 노동에 대한 의미 부여적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반전·반핵 운동은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전쟁과 빈부의 격차, 인간 소외, 물질 만능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 저항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업혁명 이후 자연의 착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데에 아무런 저항이 없는가이다. 동양적 인식에서 여성을 땅, 흙, 물, 숲, 나무 등 자연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신화」에서 단군왕검의 어머니는 고난을 견뎌 꿈(자연)으로 나타난다. 서양 역시 이와 비슷한 자연에 대한 인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나보고 땅을 개간하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칼을 빼 어머니의 가슴을 찌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도 어머니는 나를 데려가 가슴속에 품고 고이 재우지 않을 것입니다.”

“돌을 파내라고요? 어머니의 피부를 찢고 뼈를 빼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도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 환생할 수 없게 됩니다. 풀을 베서 팔고 백인들처럼 부자가 되라고 하셨나요? 내가 감히 어떻게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존 저잔 편, 정승현·김상우 역, 『문명에 반대한다』, 와이즈북, 2009, 122쪽)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상징하지 않더라도 여성, 특히 어머니는 자연과의 친연성이 강하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대지를 어머니로 상징한다. 개간을 위해 땅을 파는 행위는 “칼을 빼 어머니의 가슴을 찌”는 행위가 되고, 돌을 파는 행위는 “어머니의 피부를 찢고 뼈”를 꺼내는 행위와 동일시된다. 또 풀을 베는 행위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가 된다. 즉 자연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은 물론 근대 이전 문학물에서 자연은 늘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의 몸에 비유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이성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틀 안에서 자연은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과 여성의 원형 상징이 멀어지게 된 원인과도 상통하는 이러한 변화는 근대 물질문명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이 긴장한 젊은 남성을 위한 착취의 대상물이 되어가는 동안 자연 역시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에코 페미니즘이 말하는 여성과 자연의 동질성은 결국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에서 비롯된 가부장제를 통해 확인된다.

도본느에 의해 처음 명명된 에코 페미니즘은 이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여성의 착취와 자연의 착취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이 담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법적 측면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여성 운동이 가진 사회 운동적 측면이 강화된 담론이다. 에코 페미니즘의 시작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전·반핵 운동의 구체적 목표로 상정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이후 다양한 여성 운동과 환경·생태 운동을 아우를 수 있는 목표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날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분절화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 범위와 한계가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는 에코 페미니즘은 운동적 성격으로 인해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사회 생태주의나 생태 사회주의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운동과의 관련성을 강화하면서도 심층 생태주의가 보여준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환경개량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에코 페미니즘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기본적으로 계급적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사회 생태주의와 생태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자본이나 정치·사회적인 계급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이것의 중요성은 생태 담론이 자칫 자연과 과거를 단순히 미화하고 찬양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어머니로서 자연과 만물의 관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심층적 생태 담론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사회운동을 하나의 테제로 묶을 수 있음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치 담론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에코 페미니즘은 생태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대되

있듯이 앞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위기의 수많은 징후들은 세계를 하나의 속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후기 자본주의를 앞세운 오늘날의 물질문명 사회가 1997년 IMF 이후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이에 대해 에코 페미니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문명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한 제국주의적 양상을 띠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상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운동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회복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공함으로써 길 잃은 나그네에게 보이는 희미한 민가의 불빛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수필 문학에 수용할 때 유의할 부분도 있다.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수를 무시하고 단순히 피상적 대립 구도로 작품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수필은 주제를 표면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인간 삶의 다양한 유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문학적 감수성이 함께 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을 파괴하는 것과 여성을 억압하는 행위를 단순화하여 동일 선상에 두고 남성을 억압하는 비윤리적 인물로만 형상화한다면 이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물질문명 사회에서 인간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타자화되고 소외된다. 이는 남성 또한 예외가 아니며 에코 페미니즘 역시 남성을 단순히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된 오늘날의 인간에 남성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에코 페미니즘은 무한 경쟁을 통해 인간적 가치를 상실한 물질 만능의 오늘날의 문제적 상황을 관용과 배려, 포용과 인정, 협동과 상호 존중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이 구체적 삶의 세목을 통해 형상화될 때 좋은 생태수필이 탄생될 것이다.

2. 공동체와 생태위기

현생 인류가 탄생하기 전 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 동안 원시공동사회를 이루고 살았다. 흔히 석기시대로 알려진 이들의 삶은 유목생활이 주를 이루었다. 가족의 개념은 극히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느 한 곳에 예속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가족과 가족 사이에 계급은 존재하지 못했다. 이후 씨앗을 심어 가꾸는 농업사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농업혁명’이라 칭하며 극찬하는 삶의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적 성과에 힘입어 두 시대를

www.kci.go.kr

산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호모사피엔스에 비해 건강한 치아와 큰 키를 유지했으며 수명 또한 더 길었다.

그렇다면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어떤 변화가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일까? 자연 상태에서 유기체는 자연의 법칙에 가까운 생활을 하도록 체계화되었다. 벌이나 개미처럼 근대인들에 버금가는 계급적 특성을 보이는 유기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아주 작은 가족을 구성하고(혹은 혼자서 살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대부분의 양식을 구한다. 야생의 동물들이 야생 상태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것처럼 인간 또한 그러한 삶의 양식에서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농업이 인간의 주 생산수단이 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보다 농업의 발달과 함께 당연히 수반되는 상업의 발달은 땀 흘리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보다 많은 농토를 기반으로 한 계급이 탄생되었다.

농토를 기반으로 한 계급적 관계는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경계를 만들어냈다. 고대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기에는 왕과 무당(신의 대리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어느 한쪽의 권력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 위계질서를 만들어냈다. 이후 상업의 발달과 산업혁명을 위시한 산업화와 함께 양산된 부르주아는 그러한 권력 관계를 물리치고 ‘돈’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뚜렷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에 기반한 시장 경제와 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중요한 인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20세기 경제공황과 소련의 몰락이 가져온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의 편에 선 작은 정부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제체제로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자본가와 권력의 결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빈부의 격차와 실업 문제 등을 일상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상황에서 사회생태주의는 탄생했다. 사회생태주의는 심층생태주의가 가지고 있던 자연과 인간의 동등한 관계성 회복은 인간과 인간의 위계적 관계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북친이 주장한 사회생태주의는 심층생태주의가 보여준 신비주의적 담론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미물과 인간이 정말 지구상에서 동등한 자연물인가?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지는 인간이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과 생태 파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심층생태주의는 어떠한 답도 내어놓지 못했다. 다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동등하게 유지하고 인간 역시 지구 안에서 유기체적 속성을 보이는 하나의 자연물에 지나지

않다는 근본적 사유 체계를 제공할 뿐이다.

사회생태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계급적 위계를 타파하여 인간과 자연의 대등한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위계적 관계는 단순히 봉건적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사회주의가 말하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말하는 것도 지엽적이다. 사회생태주의의 극단은 무정부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더 많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인간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가?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산업화와 함께 퍼진 자본주의는 과잉 생산이라는 필연적 결과에 전쟁을 통한 식민지 개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욕망의 재생산이라는 불가피한 대안에 집착한다. 더 많은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더욱 경쟁에 몰입하게 되고 승자 독식 나아가 기계화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는 결국 권력과 결탁한 자본가가 더욱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난다. 삶의 대부분을 기계처럼 교체할 수 있는 잉여 인간이 된 사람들에게 행복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생존이다. 그는 자연상태에 보다 빨리 적응하는 개체가 뒤쳐진 개체를 복속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은 경쟁만으로 살 수 없다. 오히려 상호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안다. 프로포트킨은 이를 상호부조라 명명하면서 인류가 경쟁이 아니라 상호부조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주장한다. 경쟁을 통한 배제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호부조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서양에 비해 원형적 역사관을 가진 동양에서 일상화되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기초로 한 이러한 협력과 상호 존중은 오늘날 기계화되어 소외된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일구어 갈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유발 하라리(2015)는 공동체의 시작을 매우 이른 시기로 끌어 올린다. 인류의 먼 조상은 다른 동물에 비해 뇌의 용량이 크고 직립보행을 했다. 네 발로 다니던 시기에 비해 머리는 커졌으며 후손을 낳기 위해 엉덩이가 좁아졌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이른 출산을 선택하게 되었고 갓 태어난 아이의 매우 부족한 생명 유지 기능들은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사회적 구성원을 통해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먹이 사슬에 정점을 이룬 것은 1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출현 이후였다. 인간을 키우기 위해 부족은 필연적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대가 없이 나누고 어려울 때 돕는 강한 결속력을 지닌 사회를 만들어냈다. 언어를 통해 추상적 진술까지 가능하게 된 것은 이러한 결속력과 함께 다른 모든 동물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량을 갖추게 된 요인이다. 이후 동일한 신화에 대한 믿음은 부족을 넘어 거대 국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인간 종의 전체 역사에서 대부분은 수렵·채집을 통해 생명을 유지했다.

그럼 38억 년 전 지구에 생명체가 생기고 25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생긴 이후 인류가 어떤 협력적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까? 이에 대해 김종철은 ‘소농촌 공동체’를 구상했다. 그는 오늘날 발생한 자연과 환경에 대한 파괴가 거대 국가라는 인위적 복종의 상상체계를 만들면서 발생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자연은 인간과 늘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는 거대 국가의 탄생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착취했다. 그런데 국가는 추상적인 무형의 권력 기관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기관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절대 권력은 각 개인을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격하시킨다. 한국에서 1970~80년대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워야 했던 것은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농촌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근대 이전의 ‘마을 공동체’로의 회복을 근간으로 한다. 조심스러운 것은 소비를 미덕으로 편리함에 길들여진 오늘날의 도시인들이 과연 작은 농촌으로 회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쩌면 전면적인 인간 욕망의 전회 없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무서운 징후들은 더 이상 지금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인간의 삶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유의할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몇몇 은퇴자들이 물질적 풍요를 그대로 간직한 고급 주택을 지어 농촌 생활을 하자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멸절한 산을 파헤쳐 만든 아파트에 ‘녹색 아파트’라는 모순 형용의 수사를 붙이는 것과 같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급적 작은 단위에서 공동체를 만든다. 오늘날 발생한 생태위기는 거대 권력 기관인 국가의 위계가 개개인을 압도하여 발생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 역시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 자급자족적 경제체제 속에서만이 구성원의 대등한 지위는 완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공동체로 조직되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정한다. 둘째, 농업을 근간으로 한 마을 공동체이다. 물질문명이 만들어 놓은 오늘날의 삶의 양식은 땀을 흘리지 않고 발생하는 다양한 이익에 목을 맨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 열풍은 물론 부동산 투기 역시 자본이 노동의 생산성을 앞지르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 모두는 소농을 기본으로 한 자급자족적 생활 양식을 근간으로 한다. 작은 마을이 가진 우애와 관용과 협력적 삶은

우리가 그동안 전근대라는 틀 안에서 멀리했던 생활 양식이다. 그러나 이를 회복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복속된 오늘날의 삶의 양식으로는 전지구적 생태위기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요원하다.

협력과 우애를 바탕으로 한 작은 마을의 회복은 생태수필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풍요로운 자연을 소재로 인간의 안식을 꿈꾸는 문학도 필요하다. 그러나 생태수필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 황량한 도시 속에서 소외되고 기계화된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문학 역시 길을 잃고 헤매는 야간 산행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과 인간의 위계를 타파하고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작은 마을을 꿈꾸는 것은 멀리있는 희미한 별 하나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생태수필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속에는 서로 경계심 없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이웃과 함께 위계 권력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비판의식 또한 함께할 때 더욱 건강한 문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동체의 회복은 그야말로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족조차 함께할 수 없는 파편화된 현대인에게 따뜻한 이웃은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인간에게 가장 위협한 것이 무엇인가? 신현림 시인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약속도 없는 토요일 오후에는 드라쿨라라도 와주었으면 한다는 시를 썼다. 물질적 신체적 허기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 외에 어떤 무엇도 불가능하다. 생태수필이 그러한 우애와 협력과 관용을 기반으로 한 작은 마을을 지향할 때 인간과 인간의 위계는 사라지고 그에 상응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욕망과 행복의 전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박병수가 주축이 된 변산 공동체와 같은 실험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의 실험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욕망과 행복의 전회를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3. 여성과 공동체의 생태수필 의미

수필은 어느 문학이 그렇듯이 수필가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새로움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꿈꾸는 몽상가의 기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학 자체가 현실을 기반으로 현실 밖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태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필가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작품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간과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여성과 자연의 위상을 동등한 지위로 보자는 대안, 인간 소외 자체를 젠더의 감성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운동과의 연결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에코페미니즘의 저력이 된다. 또한 인간과 인간의 위계적 질서를 깨고 인간과 인간의 동등한 지위, 사회적 상호관계를 가능케 하는 작은 마을 지향 또한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묵시록적 생태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태수필의 일단을 여성과 공동체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